

아」(*Interpreting God and the Postmodern Self*)⁴²⁾는 우리 시대의 신학 연구의 동향과 행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끝으로 역사신학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저널로는 미국 교회사학회(American Society of Church History)가 발행하는 *Church History*(계간), 주로 교부학을 연구하는 일들에 의해 발간되는 *Studia Patristica*, 16세기를 주로 연구하는 이들의 *Sixteen Century Essays and Studies*, 그리고 영국의 케임브릿지대학교 출판부가 발행하는 계간지인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등이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42) Edinburgh: T&T. Clark, 1995.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再考)

Reconsideration of Understanding about Mission

이복수 교수
Prof. Dr. Bok-Soo Lee

- I. 들어가기
- II. 선교란 용어의 개념
- III. 전도와 선교의 차이
- IV.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와 중심적 사역으로서 전도에 대한 이해
- V.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 이해에 어울리는 요소들에 대한 고찰
 1. 그리스도의 사역
 2. 사도들의 사역
 3. 개혁주의 신학이 이해하는 선교의 목적
 3.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담고 있는 내용
 4. 선교란 용어의 현실적 사용
- VI. 결론

Abstract

The term "revival" was one of the famous terms in the past time of the Korean church's history. But now it has changed into the term "mission". It is a natural situation in which the Korean church has passed through the process of revival. What then is mission? There are various understandings of it. There are even different understandings of it among missiologists. The writer is going to present a new understanding of mission in a basis of reformed theology.

Some missiologists think that "evangelism" is to proclaim the Gospel of Jesus in domestic conditions; but "mission" is to do it in a foreign country. Others understand that evangelism is to proclaim the Gospel to the people in an area where the Gospel has already been heard; but mission is to do it to people in an area where the Gospel has not yet been heard. It is also expressed as follows: evangelism is for "no more Christians", but mission is for "not yet Christians." Others explain that evangelism is to proclaim the Gospel in their same cultural area, but mission is to do it in a different cultural area. According to these understandings, evangelism and mission are not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the aspect of character of works. Namely, they are to the same work as proclaim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However, it is necessary for us to reconsider mission as a more comprehensive dimension rather

than evangelism. This is a way of understanding mission and evangelism in the aspect of character in each of their works.

According to this understanding, mission is the comprehensive works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for the Kingdom of God, placing evangelism in the central rank of the works. This understanding of mission seems to be harmonized with a Biblical teaching and a reformed theology as in the following reasons. (1) The total works of Jesus, evangelism, teaching, and healing, are considered as mission. But it is not easy for us to think that His works in a foreign country or in a different cultural basis are mission, but His works in His own country or in a same cultural area are evangelism. (2) The works of the apostles are also not easy for us to divide in that way. If it is possible, Peter the apostle must be called an evangelist, but Paul as a missionary. In fact, this is meaningless. (3) Mission as more comprehensive works is harmonized with reformed theology's aim of mission as the Kingdom of God, because the Kingdom of God is also a more comprehensive dimension rather than any dimension which can be achieved by evangelism.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mission is the comprehensive works of the church for extending the Kingdom of God, placing evangelism as its central place. Accordingly, it is not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that mission is cross-cultural work of missionaries. Rather it is better for us to understand that cross-cultural work of missionaries are one of the various kinds of mission.

이복수, 고신대 및 동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 Div.), 스코틀랜드 Free Church of Scotland College(Post. Dip. Th.) 및 Aberdeen Univ.(Th. M.)에서 실천신학 전공. 남아공 Potchefstroom 대학 에서 선교학으로 신학박사(Th.D.)학위 취득. 현재 고신대학 선교학 교수로 재직. 저서로 「사회복음주의」 및 논문으로 "The Social Gospel's View of Mission and Its Impact o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Liberation Theology" 등이 있음

I. 들어가기

“부흥”이란 용어가 지난 날 한국 교회 안에 뜬 용어였다면 지금은 “선교”란 용어가 더욱 부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복음을 받은 교회가 먼저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이룩했다. 성장의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이후에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 교회 내에 선교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의 결과로 한국 교회는 지금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몇몇 대표적인 나라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겨우 100여 년을 넘긴 짧은 한국 교회의 역사에 다른 어떤 나라가 추종할 수 없는 진기한 기록임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선교의 시대를 맞았으나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그리 명확한 대답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해외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정도로만 이해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쩌면 이러한 상태는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위임한 선교사역의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교학자들 사이에는 선교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두고 논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 역시 선교가 무엇인가를 논하기에 별다른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선교를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재고(再考)해 본다.

II. 선교란 용어의 개념

선교(mission)란 용어는 라틴어 *mitto*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내다”라

는 의미이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ἀποστέλλω)와 “뎀포”(πέμπω)로 신약성경에 쓰였는데, 아포스텔로는 135회 나타나고, “뎀포”는 80회 정도로 나타난다. 이 두 헬라어 역시 “보내다” 혹은 “파송하다”를 뜻한다.¹⁾ 이러한 어원적인 배경 위에서 볼 때 특수한 임무를 부여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송하는 것이 선교란 용어 자체가 지니는 본래적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영어의 “missionary”(선교사)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13세기에 천주교의 수도원에서 사용되었다. 당시에 이 단어는 “세상에서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지칭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와서는 천주교가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 파송하는 전도자들에게 선교사란 명칭을 부여했다. 후에 개신교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복음전도를 위하여 파송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불렀다.²⁾

이렇게 선교는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dispatch)되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기에 선교학의 조종(祖宗)으로 불리는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넥(G. Warneck)은 파송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리는 비기독교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의 설립과 조직을 기독교로 이해한다. 이것을 “선교”로 부르는데 여기에는 파송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파송은 사자(使者)를 통하여 수행되며 선교의 목표가 달성된다. 일반적으로 “선교”라는 명칭은 높은 위치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는데 적용된다.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바울도 말한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후 5:20).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고전 4:1) 파송되는 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이다.³⁾

1) Kittel, Gerhard and Go, Frieck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1, Grabd Rapids: Eerdmans, 1964, pp. 396-406.

2) Wieser Thomas, (ed), *Planning for Mission*, New York: The U. S. Conference for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66, p. 39; 전호진, 「선교학」 개혁주의신행협회, 1994; p. 20, 박영호, 「선교학」,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 13.

3) Warneck, Gustav, *Evangelisch Missionslehre*, Gotha: Friedrich Andreas Perthes, 1887, p. 1.

영(John M. L. Young)은 그의 저서, 「선교의 동기와 목적」(*The Motive and Aim of Mission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된 선교는 그 근본이 하나님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계 도처에 퍼져 나가는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 선교란 용어는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일을 말한다.⁴⁾

이러한 인용들에 의하면 파송의 개념이 선교란 용어의 본래적인 의미였음을 더욱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위의 두 인용에서 파송이란 의미를 포함시킨 정의를 내렸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려 한다. 그들이 지정하고 있는 대상으로 “비기독교의 사람들”이나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필자가 선교를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제시하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III. 전도(Evangelism)와 선교(Mission)의 차이

위에서 선교의 어원적 개념이 파송에 있음을 살폈다. 어원적 개념이 선교를 정의하는데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보다 다방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그러한 일환으로 과거에 선교와 전도를 각각 어떻게 이해하여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선교(mission)와 전도(evangelism)는 다른가? 만일 동일하다면 선교와 전도는 같은

내용을 교차로 호칭하는데 지나지 않은 것인가? 다르다면 각각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바른 고찰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울 것이다.

지난날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복음전도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와 전도를 특별히 구분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선교와 전도 두 가지가 다 오로지 복음을 구두로만 선포하는 것”이 초기의 견해라고 지적한다.⁵⁾ 더욱이 선교 학자들 중에서 헨드릭크레이머(Hendrik Kraemer)와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Hoekendijk)같은 학자들은 전도와 선교를 같은 의미로 해석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었다.⁶⁾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로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경향이 일어나기도 했다. 보쉬에 의하면 과거에 전도와 선교는 지리적이거나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⁷⁾

먼저 지리적인 구분에 의하면, 선교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단순히 지역으로만 본국과 타국으로 나눈 것에 불과하며 사역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사역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지역적인 차이로 선교와 복음전도를 이해한 것은 16세기의 상황에 어울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구는 이미 기독교가 정착되었기에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경향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에 있어서 16세기에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관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것을 선교로 이해했으며, 이방인의 개종을 위해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했던 유럽의 기독교회가 선교라는 말을 강조했다. 따라서 선교사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 파송되는 사람으로, 전도자는 국내에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4) John M. L. Young, 권달천 역, 「선교의 동기와 목적」(*The Motive and Aim of Missions*), 개혁주의신학협회, 1972, p. 9

5) Bosch, David, *Witness to the World*, Atlanta: John Knox Press, 1980, p. 12.

6) *Ibid*, p. 13.

7) *Ibid*, p. 12.

이러한 지리적인 구분의 입장 위에서 선교를 정의한 사람들로,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던 존 영(John M. L. Young)이나 구스타브 바르넥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영에 의하면 “선교란 용어는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조금밖에 모르는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주로 외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는 일을 말한다”⁸⁾고 정의했다. 구스타프 바르넥(G. Warneck) 역시 “비기독교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조직하는 것”⁹⁾을 선교라고 말함으로 지역적인 구분 개념으로 표현했다.

다음은 신학적 구분으로서, 선교는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Not-yet-Christians)과 관계되는 일이고, 전도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No-more-Christians)나 혹은 이름만의 기독교인으로 자칭하는 사람들(Nominal Christians)의 신앙을 부흥시키는 일”로 나누었다.¹⁰⁾ 다시 말하면 선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면, 전도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사람이 있는 지역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믿지 아니하는 명목적 기독교인들(Nominal Christians)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미전도종족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선교이고, 이미 복음을 받은 지역의 불신자들과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이름만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전도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역시 사역의 성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범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신학적인 구분은 이미 위에서 고찰한 지리적인 구분과 유사성이 없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본국은 이미 복음을 수용한 것이 분명하며, 타국은 아직 복음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위의 두 구분이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리적인 구분은 단순히 장소로서 본국이나 타국의 구분이라면, 신학적인 구분은 이미 복음을 받은 지역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지역의 사람인가에 더욱 초점을 두는 구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인 구분은 장소에 강조를 두는 구분이라면 신학적인 구분은 대상에 강조를 두는 구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신학적인 구분에 있어서 전도의 대상으로 명목적 기독교인들을 포함시킨 것은 서구 교회의 심각한 현상들을 간파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독교 역사가 깊은 서구의 교회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반드시 복음에 재차 직면토록 해야 한다는 관심임에 틀림없다. 크리스천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일년에 적어도 한두 번, 즉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교회의 명절로 생각하여 참여하면서 자신이 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서구교회들 안에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는 한 설교자의 지적을 기억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30%가 소위 크리스천으로 불리는데 그 중에 5%정도가 진정한 크리스천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통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명목적인 신자가 많다는 심각성은 충분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선교와 전도를 신학적으로 구분하여 이미 복음을 수용한 지역의 사람들 일지라도 다시 복음에 직면케 해야 한다는 복음전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귀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신학적인 구분 개념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화란 신학자 반 룰러(A. A. Van Ruler)가 있다. 보쉬는 룰러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랜 역사를 서구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고 ... 유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면에서 아시아에서와는 달리 복음을 위한 접촉점이 있다. 기독교에서 벗어나 세속화된 유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교도는 아

8) 권달천(역), *op. cit.*, p. 9.

9) Schomerus, H. W., *Missions-Wissenschaft*, Leipzig: Verlag Quelle, 1955, p. 4.

10) Bosch, D., *op. cit.*, p. 12.

니다. 사실상 서구인은 이제 이교도로 되돌아갈 수 없다. ... 서구인은 이제 다시는 기독교 이전의 세계로 또는 이교주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없고, 그가 이미 기독교 이후의 세계에 속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구별해야 한다.¹¹⁾

윌터 프레이타그(W. Freytag) 역시 선교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방인 가운데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¹²⁾으로 말하여 단순한 지역 개념보다는 대상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교와 전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구분해온 것으로 지리적인 구분과 신학적인 구분에 대하여 고찰해 왔다. 필자는 여기서 이러한 두 경향 외에도 또 다른 한 경향으로서 문화적인 구분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문화적인 구분은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 구분의 경향보다는 근래에 일어난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화적인 구분 개념에 의하면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이고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것 역시 문화권으로만 구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성격에는 구분이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화적 구분은 지리적 구분과 차이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타 문화권은 지리적으로 본국이 아니고 타국이며 동일 문화권은 주로 본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동일 국가이면서 문화 전통이 다른 민족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남아 공화국에서 수 년 간의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동안에 문화적 구분과 지리적 구분은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아 공화국은 백인과 언어가 서로 다른 많은 흑인 종족들이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

는 것이다. 3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이주해 간 백인들은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흑인 종족들은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문화적 구분이 지리적인 구분과 반드시 일치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남아 공화국의 한 백인 목사와 친하게 지내면서 나눈 대화로 통해 그가 문화적 구분의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백인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선교사로 사역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그에게 선교사로 사역한 곳이 어디인가를 물었을 때, 그곳은 근접해 있는 이웃 흑인 부락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바로 이웃 부락이었으나 문화권을 달리하는 흑인 부락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는 입장에서 그의 사역을 선교로 이해했던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경우는 선교와 전도에 대하여 지리적인 구분이 문화적인 구분과 동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인 구분으로 선교를 정의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선교학자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을 들 수 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서 문화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했다.¹³⁾

IV.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와 중심적 사역으로서 전도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개념의 차이에 관한 몇 가지의 구분들을 고찰했다. 그러한 구분들에 의하면 사역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사

11) *Ibid.*, p. 13.

12) Manecke, D., *Mission Als Zeugendienst*, Wuppertal: Theologischer Verlag Rolf Brockhaws, 1972, p. 66.

13) Glasser, A. F. and McGavran, D. A.,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p. 26.

역의 성격은 오직 복음전도의 한계 안에 머물렀다. 이러한 한계에 의하면 선교가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 이상의 포괄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는데 미흡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교와 전도를 사역의 성격으로 분리하면서 선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즉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이라면 선교는 교회가 전도를 중심사역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보다 포괄적인 사역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선교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차원 이상의 포괄적인 사역으로 이해하여 자신의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케인(Kane)¹⁴⁾에 의하면 “복음의 구속적 선포”의 활동을 전도로, 전도활동 뿐만 아니라 교회개혁, 의료봉사, 교육사업, 농업사업 등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은 선교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선교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었다. 심지어 코스타스(Costas)¹⁵⁾는 복음전도 이상의 포괄적 사역을 선교로 보면서 전도와 선교의 우선권에 차별을 두는 것마저 거부하여 두 가지 전체를 교회의 전체(total) 선교로 말하고 있다.

팩커(Packer)는 교회의 사명을 포괄적인 의미로 설명하여 말하기를, “죄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제 속에서 왕으로 모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란 예배하며 전도할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명을 가진 성도의 연합이라”¹⁶⁾고 했다. 팩커는 선교와 전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만 한정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지상에서 주를 위하여 해야 하는 보다 포괄적인 일들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스토트(John R. W. Stott) 역시 선교와 전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

지는 않으나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교의 개념을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세계 속의 기독교적 봉사로서 복음전도와 사회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선교에 대한 개념을 받아 수용한다면, 즉 우리 주님의 지상 선교를 모델로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관을 가진다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복음 활동과 사회 활동으로서 보다 큰 영향, 우리의 수적 능력과 또한 그리스도의 위임의 엄청난 요구에 상응하는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스토트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선교관은 주님의 지상 선교를 모델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말하면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포괄적인 의미의 수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1974년 스위스의 로잔(Lausanne)에서 모인 세계 복음전도 국제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sm)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 나셨으며, 이제는 통치하시는 주님으로서 모든 죄의 용서와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믿고 모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복음전도에 필수 불가결한 일이며 ... 그러나 복음전도 그 자체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설득할 의도로서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도하는 일이다. 복음의 초대를 나타냄에 있어서 우리는 제자의 직분에 따르는 희생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전히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속한 새로운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생활하면서 따라 오도록 말씀하며 부르고 계신다. 복음전도의 결과들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리스

14) Kane, Herbert, *The Christian World Mission: Today and Tomorrow*,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1, p. 144.

15) Costas, Orlando E.,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Tyndale House, 1975, p. 11.

16) Packer, J. I., *Evangelism and the Sovereignty of God*, London: IVP, 1965, p. 39.

17) Stott, J. R. W.,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London: Falcon, 1975, p. 34.

도의 교회 안에서의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책임있는 모든 봉사가 포함된다.¹⁸⁾

로잔언약 역시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여 각각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지 않으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은 성경적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함을 밝히면서 아울러 세계 속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피해서는 안 될 것으로 강조하여 포괄적 사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몇몇 인용들에 의하면 선교란 기독교에 주어진 보다 포괄적인 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것의 중심 과제로서 전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필자는 선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선교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전도의 중심적 사역과 더불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봉사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교는 복음전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복음전도는 선교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유의가 필요한 것은 복음전도를 선교에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복음전도를 선교에서 분리한 봉사사역은 선교가 아니라 단순한 봉사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행위는 선교일 수 있으나, 복음전도를 제외한 치료의 행위는 선교가 아니라 단순한 치료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V.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 이해에 어울리는 요소들에 대한 고찰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보다 타당한 이해임을 여기서 고찰하려 한다. 여기 이러한 고찰에는 그리스도와 사

도들의 선교사역을 중심한 성경적인 입장과 선교를 명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살피는 것은 물론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말하는 선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선교의 이해가 어느 것인지를 고찰하려 한다.

1. 그리스도의 사역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전파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막 16:15)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말씀하셨다(마 5:13~16). 복음전파의 사역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두 종류의 사역이다. 이러한 사역은 그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각각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복음전파가 그것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주님은 친히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셨고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셨다(마 4:23; 9:35). 주님의 이러한 포괄적 활동의 중심은 복음전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만일에 복음전파를 의도하지 않고 단순히 가르치고 고치기 위하여 오셨다면 오직 위대한 교육자나 의사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포괄적인 사역을 포함하는 복음전도 활동을 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선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포괄적 이해와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사역을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선교와 복음전도를 구분하려 한다면, 그것이 간단한 문제일까? 주님께서 문화를 뛰어 넘어 먼 해외에 복음을 전하려 간 기록이 얼마나 있는가? 물론 주님은 탄생 후 멀리 애굽으로 피난 하신 일이 있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일이 있으나 애굽이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은 선교이고 유대에서의 사역은 전도라고 구분할 수 있는가? 나아가서 주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들은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에 그들에게 전한 것은 선교이고 동

18) Douglas, J. D.(ed.), *The Lausanne Covenant,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Minnesota: World Wide Publications, 1975. p. 4.

일한 문화권인 유대인에게 전한 것은 복음전도라고 나눌 수 있는가? 사실에 있어서 주님의 사역을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심지어 신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전체적인 사역을 주님의 선교사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에 이러한 이해가 보다 성경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와 그러한 포괄적 사역의 중심적 요소로 그리스도의 복음선포를 전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 사도들의 사역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선교적인 삶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도들 중에는 유대인들의 사역에 주력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 역시 단순히 문화적이며 지리적인 차이로 나누는 잣대에 의하여 나누어질 수 있는가? 이방인을 중심한 복음전도 활동을 했던 바울은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며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전도를 펼쳤던 사도들은 전도의 사역을 했다고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구분은 사실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일이다. 누구도 사도들의 사역을 이렇게 구분하여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한다. 오히려 사도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의 중심적인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총체적인 사역을 펼쳤기에 그들을 전도자요, 아울러 그리스도를 이어 나타난 위대한 선교사들로서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개혁주의 신학이 이해하는 선교의 목적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주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는 복음으로 통

하여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행되는 것을 중심으로 삼으나 단순히 개인의 심령에만 제한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나 대속주(Redeemer)로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관없이 단순한 사회적인 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벨카일(Verkuyl)¹⁹⁾은 하나님의 나라가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the vertical and the horizontal)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두면서 인간 삶의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판덜 발터(Van der Walt)²⁰⁾ 역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나라(the all-encompassing kingdom)”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개인 영혼의 구원에 머물 수 없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개혁주의 신학이 이해하는 선교의 목적이다. 선교학자 보에티우스(Voetius)는 일찍이 선교의 목적을 3가지로 말했는데, 이방인의 회심, 교회의 설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함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표현했다. 개혁주의 신학자 바빙크(Bavinck)는 그러한 세 가지 목적을 성경적인 목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목적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확장이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에 세 가지 양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보다 더 궁극적인 선교의 목적임을 말했다.²¹⁾

화란의 개혁주의 선교학자 벨카일(J. Verkuyl) 역시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는 선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하여 증거

19) Verkuyl, J., “The Biblical notion of Kingdom”,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C. van Engen, D. S. Gilliland and P. Pierson, (ed.), New York: Orbis Books, 1993, p. 73.

20) Van der Walt, B. J., *The Liberating Message*,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94, p. 308.

21) Bavinck, J. H.,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p. 155.

하신 것은 실제로 어떤 목적 때문이었는가?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 해답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과 행위로써 증거하셨는데, 그것은 자유케 하시는 주권적 통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가장 명백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다.²²⁾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교의 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은 선교의 목적을 단순히 영혼구원에 목적을 두는 복음전도의 목적에 제한시킬 수 없는 것이다. 복음전도의 목적이 영혼구원에 직결된다면 선교의 목적은 당연히 영혼구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목표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서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선교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음(the Social Gospel)이나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이 선교의 목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르다. 사회복음이나 해방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무시되고 주로 인간관계 안에서만 세워 나가는 수평적 차원에서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것 두 요소를 포함한다.²³⁾

이와같이 수직적이며 동시에 수평적 차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선교의 목적으로 이해하는 개혁주의 입장은 당연히 선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교를 전도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면서 전도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목적을 이루어 가려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선교를 포괄적 사역으로 이해하면서 선교의 목적으로서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이다.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선교를 전도의 중심적 사역 위에 있는 포괄적 사역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이라는 그것의 목적을 이룩하는 것이 더욱 타당한 관계로 수용된다. 따라서 보쉬(Bosch)²⁴⁾와 존 스토틀(Stott)²⁵⁾ 역시 선교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포괄적인 활동으로서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선포로서 전도를 포함한다고 말한다. 벨카일(Verkuyl)²⁶⁾ 역시 “교회의 깊고도 넓은 선교적 사명은 그 초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맞추고, 이것으로부터 전체적인 안목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거듭 강조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기독교 선교의 총체적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데 더욱 적합한 선교관은 선교를 단순히 복음전도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 사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더욱 이해를 돕는 것은 선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적 명령(evangelistic mandate)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 명령(cultural mandate)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그것의 과업으로 삼는다는 사실이다. 헤드런드(Roger E. Hedlund)는 문화적 명령이 선교적 개념임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전복하라 ...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는 명령 속에서도 선교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이 명령은 문화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도록 위임받은 것을 의미한다.”²⁷⁾

22) Verkuyl, J., *Contemporary Missi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8, p. 197.

23) Lee, B. S., *The Social Gospel's View of Mission of Mission and Its Impact on the Ecumenical Movement and Liberation Theology*, Potchefstroom: Potchefstroom University, 1994, p. 414.

24) Bosch, *Transforming Mission*, New York: Orbis Books, 1992 p. 10; *Witness to the World*, pp. 15, 18.

25) Stott, *op. cit.*, pp. 35, 37.

26) Verkuyl, *Contemporary Missiology*, p. 198.

27) Roger E. Hedlund, 송용조(역), 「성경적 선교신학」(*Mission to Man in the Bible*), 서울성경학교 출판부, 1991, p. 25.

따라서 선교의 중심 요소인 복음전도로 인간을 창조의 위치로 회복시키고 회복된 인간이 문화적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교회의 포괄적 활동이 곧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룩하는 선교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선교를 포괄적인 사역으로 이해하는 데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괄적 개념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는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선교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조화된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그리스도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 담고 있는 내용

주님이 선교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지상명령의 내용을 파악하는 일 또한 선교의 의미를 아는 좋은 방편으로 이해된다. 주님이 선교사역을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마 28:16~20; 막 16:14~18; 눅 24:44~49; 요 20:19~23, 행 1:8). 그런데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복음전도 이상의 포괄적 의미로의 사역을 명하고 있다. 스토틀(Stott)는 요한복음에 담긴 지상명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 선교가 단순히 복음전도의 차원 이상임을 설명한다.

요한복음의 지상 명령은 교회의 선교가 성자의 선교를 본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행한 겸손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봉사처럼 말과 행위를 다 포함하며 기아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질병에 대한 관심, 즉 복음 활동과 사회 활동을 다 포함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본인은 앞에서 논증하려고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이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이 전적으로 복음전도에만 관계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와 성도들로 통하여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시행되게 하는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까?²⁸⁾

호워드(Howard)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지상명령(16:15)은 선교사역에 관한 범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으며, 거기 “천하”(world), 곧 코스모스(kosmos)가 우리 선교사역의 영역에 포함되어 포괄적 사역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²⁹⁾ 몰간(Morgan)은 특정한 성경을 지적하지 않으나, 지상명령이 담고 있는 선교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을 위하는 사역으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사역으로서 모든 피조물의 소생과 관련되어야 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교회는 항상 사람과 더불어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지상명령이 강조하는 바가, 사람이 주목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모든 피조물의 소생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 각 개인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한 개념은 피조물들의 탄식을 전적으로 도외시키는 한, 이 지상명령의 의미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³⁰⁾

이상에서 인용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선교에 대한 대 위임령의 내용은 틀림없이 복음으로 제자 삼는 일이 중심이지만, 단순히 복음전도만을 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자 삼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자체가 선교란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역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5. 선교란 용어의 현실적 사용

이것은 신학적이거나 성경적 조명과 관계가 없다. 단지 오늘의 많은

28) Stott, *op. cit.*, p. 28f.

29) David M. Howard 저, 김경신 역, 「그리스도의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 for Today*),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0, pp. 97, 102.

30) Morgan, G. Campbell, *The Missionary Manifesto*,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0, pp. 77f.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선교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타국 혹은 타 문화권에서의 사역으로 이해하면서 용어 사용에는 선교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 한다. 그러한 예들은 다양한 것으로 여기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교육의 사역을 위하여 개설한 기관을 “선교원”으로,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청소년 선교”로, 복음전도를 목적으로 교육하는 학교들을 “미션스쿨”(mission school)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외에도 과거에 교회 내에서 “남전도회” 혹은 “여전도회” 등이 “남선교회” 혹은 “여선교회”로 호칭되는 것도 그러하다. 이러한 호칭들은 선교를 포괄적 사역으로 이해한 용어의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용어들이 선교를 지리적으로 외국이나 문화적으로 타 문화권과 관련시킨다면 선교라는 용어 보다는 전도란 표현의 합성어들, 즉 “전도원”이나 “청소년 전도” 등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들이 포괄적인 사역의 요소에 해당하기에 “선교원” 혹은 “청소년 선교” 등의 선교란 용어의 합성어들로 표현한 것이라면 선교를 바르게 이해한 용어 사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VI. 결론

일반적으로 선교를 지역적, 신학적, 혹은 문화적인 구분으로 이해하여 타국이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선교가 전도 사역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再考)를 위하여 용어와 정의 그리고 선교와 전도의 차이 등을 고찰했다.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선교를 사역의 성격에 따라 정의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면서 선교란 복음전도의 중심적 사역을 토대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여기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역 역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사역으로 한정할 수 있다. 특별히 이러한 제한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의하면 선교란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조에 의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계는 “하나님-교회-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세계-교회”라는 공식에서 설명된다.³¹⁾ 이러한 입장에서 의하면 선교란 세상의 모든 일들과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사역 역시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스토틀³²⁾에 의하면 선교란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교회가 행하도록 하신 모든 일”로 표현함으로써 교회와 무관한 모든 활동이 선교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교육, 구제, 의료, 봉사, 예배, 친교, 정의실행,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인이 부여받은 다양한 재능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게 하는 포괄적인 사역들로 열거할 수 있다.

나아가서 복음전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련된 포괄적 사역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에서 주의 해야할 사항은 교회에 주어진 같은 임무에 대한 두 측면을 말하는 것이지만 각각 다른 방향에 있는 별개의 사역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를 따로 떼어놓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은 선교라는 이해에 이르지 말고, 선교가 복음전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이며, 복음전도는 선교의 핵심 요소라는 관계 속에서 선교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복음전도의 핵심적 사역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시행되도록 하는 균형 있는 사역을 교회의 사명으로 하는 데 더욱 깊은 이해를 더할 것으로 고

31) Stott, *op. cit.*, p. 17.

32) *Ibid.*, p. 30.

려된다.

단지 선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는 선교의 개념으로서 “파송한다”는 의미가 부각되지 않는 것 같으나 세상 속에 있는 성도는 이미 주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파송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으로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요 17:14)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요 17:18)는 가르침은 파송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에 파송의 개념을 해외나 혹은 타 문화권으로만 한정한다면 선교의 목적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해외에서만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 선교 혹은 해외 선교는 늘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내려 왔다. 그러나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해외선교가 기독교 선교의 총칭 명칭으로 이해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가 곧 해외선교라는 이해, 즉 “선교 = 해외선교”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독교 선교는 근본적으로 장소성과 관계없는 포괄적 사역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해외 선교 역시 기독교 선교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해외 선교가 비록 기독교 선교의 한 부분이지만 해외 선교에 대한 비중과 관심은 다른 사역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연민은 아직도 이방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욱 우선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신신학 창간호

발행일 : 1999. 11. 30

발행인 : 황창기

편집인 : 전광식

발행처 : 고신신학연구회

등록 : 제 4-2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

고신대학교

전화 051) 400-2273

값 6,500원

판권 고신신학연구회 소유